

자료제공 : 2024. 2. 28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교통정책과장

이진구

2133-2210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: 5쪽

교통수요관리팀장

김종민

2133-2224

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, 이용자 평균 약 3만원의 할인 혜택 받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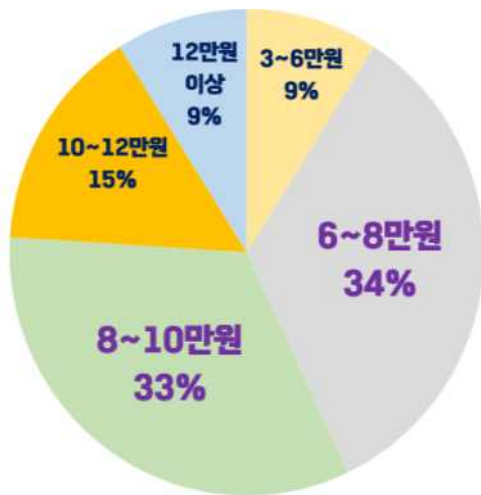
- 1.23.(화) 판매 시작, 1.27.(토) 서비스 개시 후 누적 46만장 판매
- 첫날 사용 시작한 약 10만명, 30일 평균 57회 사용, 약 3만원 교통비 절감 혜택
- 2.25.(일)까지 약 34만 6천명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 이용
- 이용자의 59%는 20~30대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층에 인기
- 청년 할인, 신용·체크카드 결제수단 확대, 문화시설 할인 등 지속적 혜택 추가 예정

서울시는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기후동행카드가 누적 46만장이 판매되었으며, 시행 첫날 사용을 시작한 약 10만명이 30일 동안 평균 57회를 사용,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.

○ 지난 1.23(화) 판매를 시작한 이래로 2.25.(일)까지 ▲모바일카드는 15만 8천장, ▲실물카드는 30만 4천장이 각각 판매되었다.

○ 첫 주말부터 사용을 시작한 사람은 약 10만명으로 월평균 57회를 사용하였다. 10만명 중 카드 가격인 6만 2천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84,326명으로 이들은 30일간 평균 91,900원을 사용하여 약 3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30일간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만원 이상 지출자를 기준으로 하면,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91%는 6만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나, 일반 교통카드 사용자의 경우 6만원 이상 지출자는 32% 불과하여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여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



< 기후동행카드 사용금액별 비율 >



< 서울권역 전체 일반 교통카드 사용금액별 비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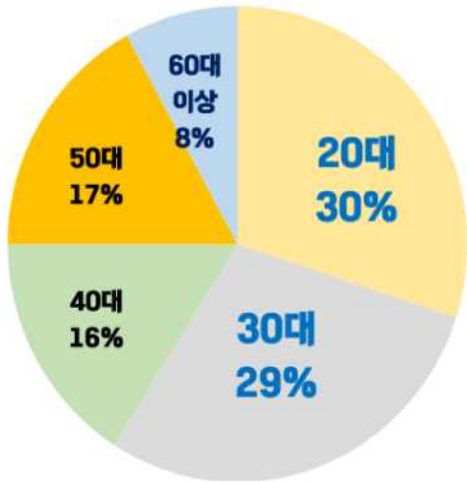
□ 한편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. 시행 후 첫 주말 약 10만명이 사용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2.23(금)에는 약 31만명까지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 30일

동안 기후동행카드로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의 수는 34만 6천명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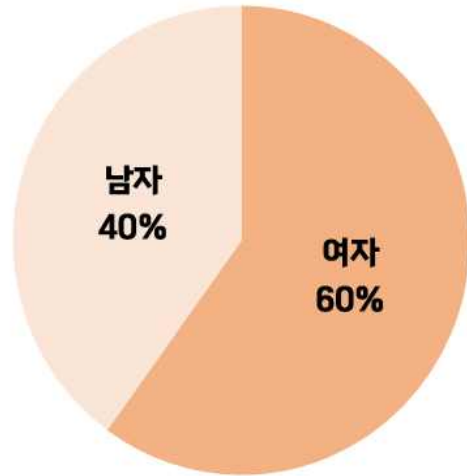


< 일별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수 >

- 30일 동안 구매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▲20대 30%, ▲30대 29%, ▲40대 16%, ▲50대 17%로,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~30대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이 넘는 59%로 나타났다.
- 이처럼 높은 청년층의 구매 비율을 고려하면 대학생, 취업 준비생, 직장에 새로 입사한 초년생 등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.
- 2.26.(월)부터 도입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이 더해지면 청년들은 월 5만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< 구매자 연령 비율 >



< 구매자 성별 비율 >

-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혁신을 계속할 계획이다. 개강 등 새학기를 앞두고 청년 할인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, 4월 중에는 신용,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서울대공원, 식물원 입장권 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등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은 무한 확장될 예정이다.
- 만 19~34세('89.1.1~'05.12.31.) 청년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2.26.(월) 충전·사용분부터 일반 권종에서 7천원 할인된 5만 5천 원/5만 8천원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.
 - 시범사업 기간인 6.30.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(6만원 대)을 이용하고,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. 7월 본사업부터는 나이 인증을 거쳐 5만원대 할인된 가격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.
 - 청년층은 등교, 출퇴근,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,

청년할인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”라며, “그간 불편 사항으로 지적받아온 현금/계좌이체 충전방식도 4월부터는 신용·체크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문화·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